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개역*, 여호수아 1:1~9]*

민물고기는 날로 못 먹지요*?* 그러나 바다 물고기는 날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민물고기는 못 먹는데 바다고기는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죠*?* 안전하니까요. 왜 안전하죠*?* 소금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짜지만 소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바닷물 *100g*이면 소금이 한 *3g*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에는 인체에 해로운 기생충이나 균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는 그냥, 날로 먹어도 되지만 민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100g*중에 *3g*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100*명 중에 *3*명만 있다면 이 *3*명 때문에 이 사회가 썩지 않고 정화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100*명 중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믿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20%*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적은 탓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고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아마 이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실까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끌어 갔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성질부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는 할 수 있을망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철자가 같고 뜻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전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그 약속은 실현이 미루어지다가 다윗의 시대에 가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전부 차지한 것으로 알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6*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합니다. 이 땅이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엄청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완수하고 땅을 차지하지만 이미 *400*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것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노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믿지요*?*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 전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투를 치르고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혹시 겁이 많았던 건 아닐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지도자가 새로 들어섭니다. 이 지도자는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어쩌면 두려움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거에 이겼다는 승리감보다는 모르긴 몰라도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을만한 사람에게 다 물어가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있을 겁니다. 선거공약이야 부담없이 말할 수 있죠. 이룰 수 없는 공약이라도 그냥 발표할 수 있겠지마는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7*절을 봅시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강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아서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해야 할 일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도자로 선출이 되었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전계획부터 짜야되지 않을까요*?* 바로 강 건너에 적군들이 성을 단단하게 지어놓고 훈련이 잘된 군사들로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걸 정복해서 이길려면 군사 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무기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할 데가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것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하시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종일 읽으라는 거죠. 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작전계획은 뒷전이고 "성경공부 합시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라도 전쟁터에서 그런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교생이 주일에도 학교에 출석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고*3* 학생이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성경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면... 여호수아한테 비하면 별 것 아니죠*?* 그럴 가능성을 한 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나가기 전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에 나올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함부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저런 작전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부임해서 며칠 안 되어서 왕신초등학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포크댄스 대상을 탔습니다. 얼마나 잘 했으면 대상을 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쌍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박자가 맞나 스텝이 맞나, 전혀 안돼요. 우리 목사님더러 예배 인도하고 신학 강의하라면 아마 하루종일 기쁨으로 하시겠지만 포크댄스는 잠시라도 고역일 겁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도 종목이 바뀌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보되기, 일도 아닙니다.

전 평생에 바다에서 고기라고는 조그마한 것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냥 낚시대를 담가놓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고기가 무는 것 같은데 당기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저건 분명히 고기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왜 안되냐*?*"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댕기세요." 그러니까 걸려 올라오데요. 그것 참, 왜 하나 둘 셋 헤아려야 되나요*?* 고기에 따라서 까닥까닥하면 바로 당겨야 하는 놈이 있고, 하나 둘 셋 하고 당겨야 되는 놈도 있고, 찌를 물고 쏙 내려가면 당겨야 하는 놈도 있고... 다 다르다네요. 아, 낚시가 복잡한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고기 따라 다르고 미끼 따라 다르고 장소 따라 다르고 다 다르답니다. 얘기를 한참 듣고 나니까 낚시도 간단한 게 아니더군요.

낚시에 대해서 신이 나서 설명해 주는 그 집사님은 낚시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여기 와서 설교 한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이 달라지면 사람이 힘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가야 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종목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아니 낚시하러 가려면 낚시대 들고 밑밥 챙겨야 하는데 그것 놓아두고 성경책 들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 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일에도 다들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공부하고 있다면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거든 교통사고 내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누군 내고 싶어서 내나요*?* 물론 안 내고 싶죠. 그러나 사고가 날 때 나더라도 본인이 피하려면 사고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금 줄이고, 조금 양보하고, 졸리면 쉬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면 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자꾸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전 여러분들을 아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싸움을 잘 못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소리부터 질러야죠. 그 다음 안면에 철판 깔아야죠*?* 무조건 잘못한 것 없다고 우겨야죠*?*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아예 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싸울 능력도 없는데 싸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한쪽에서는 주먹으로, 목소리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덤빕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거든요. 싸움이 애시당초 안됩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얼굴에 철판 깔고 덤비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안되는 어

거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 성질도 못 부리고 어거지도 못 부립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인내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겐 인내와 사랑밖에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성질에다 어거지에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출세를 합니까*?* 손도 잘 비벼야 되고, 줄도 잘 서야 되고... 이번 선거에 줄 잘못 서 가지고 큰 일 난 사람 있잖아요. 아첨도 잘 해야 되고, 남자들은 술자리도 잘 가야 되고, 이게 출세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는 그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논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면 두 달 내에 꽉 잡으라고 하는데 실천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죽도록 사랑하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거 괜히 말씀대로 하다가 두 달만에 잡혀서 평생 잡혀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잘못하면 평생 잡혀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나는 절대 복종하는데 혹시 저 남자가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경우에 따라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있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 *3*명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감당해 내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적 앞에서 전쟁 칠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겨 날 건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 예를 한 번 찾아봅시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앞 날이 창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가는 곳마다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엄청난 수모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세상의 원리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중간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꼭 속이는 자 같아 보일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하는데 무명한 자 같아 보여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마치 죽는 자 같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다음,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다음, *'***아무 것도 없는 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자기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론 어떤 사람이죠*? 9*절부터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죠*?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참 좋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것이 참된 그

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패배자 같으나 실상은 엄청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저께 월간 고신을 잠깐 폈더니 우리나라 이혼율이 *42%*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42%*라는 것은 *10*가정에 *4*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 잘 못 봐서 그렇겠지만 불신 이웃들 중에는 깨어지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주었던 세상의 원리가 조금 흔들리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마구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밤길을 걸어갈 때 후레쉬를 저 앞에 비춥니까*?* 발 앞에 비춥니까*?* 발 앞은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저 앞쪽을 비춰야 되죠*?* 운전할 때 속도가 한참 나는데 차 바로 앞을 보고 가면 당장 사고납니다. 이게 차선이 맞나 안 맞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보고 있으면 똑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눈 앞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잘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앞이 캄캄하더라도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당장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조그마한 어려움에 부닥쳐도 쉽사리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같고 죽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짧게 보면 실패자 같아 보여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맥없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 분이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따라 다니면서 출세한 것 뭐 있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쌍하거나 헛되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탄절 전야 연극에 손양원 목사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들도 순교했지만 자신도 끝내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구요*?*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후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안이숙씨 생각나죠*?* 안이숙씨가 누구 본을 보았을까요*?* 에스더의 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원조가 성경에 따로 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건 아니에요. 야곱은 '잃으면 잃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굴 잃어요*?* 베냐민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애는 안된다."고 버티던 그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 보내서 결국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내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새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삽니까*?*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싹이 나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라고 해서 만원짜리 땅에 한 번 묻어보세요. 열매 많이 맺혀요*?* 안 맺힙니다. 생명이 있는 걸 묻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죽어도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순한 오기는 확률의 문제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살려다가 죽을 뻔한 이런 체험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가노라면 그것이 죽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 실망할까 싶어서 반대되는 이야기도 한번 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이 들어올리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다윗처럼 높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아주 높은 자리에 들리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제가 보기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을 쓰고 있는 한 '먼지 날 짓을 하면서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날 일이 없다는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쓰실지, 아니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리실지 그건 모릅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모습으로 가든 저런 모습으로 가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내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지 전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쟁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살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다가 한 번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형통하고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선으로 생각한 다음 그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전쟁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힘드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혼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 안될 것 같지*?* 걱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살펴보고 그 뜻대로 행하라. 그것이 결국은 형통한 길이요 네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한국에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만사형통의 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복은 우리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희생과 죽을 뻔한 고통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송충이가 뭘 먹어요*?* 솔잎 먹어야죠.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선 먹고 봐야 되고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송충이라고 다 같은 송충이로 아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는 진짜 송충이고 하나는 송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저 지옥에 갈 놈들' 이러면서 불신자들과 끊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다." 이 말이 우리들 입에서 많이 나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더 이상 기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 정말 죽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

오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일제시대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해도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생애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말씀대로 살려고 작심을 하고 해 보면 조그마한 일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성질나는 것 죽여야죠*!* 조금만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싶은데 포기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소리질러서요*?* 만약에 소리질러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에 가서 소리질러야 하죠. 뺑뺑이를 많이 돌아서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전쟁에서도 또 뺑뺑이 돌아야지요.

그들이 성을 돈 것이나 소리를 지른 것이나 그것은 성이 무너진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왜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없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재미가 정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고역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이 고백이 우리교회에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준비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